

‘2008 대한민국 경영혁신 大賞

기술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코엔전자산업(주)



전원 공급 배선장치인 하네스 전문 제조업체 코엔전자산업(주) (대표 이상태)는 대표이사의 개인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후 쉬지 않고 성장을 지속,

내실과 비전 면에서 투자자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. 엘리베이터 부문에 특화된 기술로 매출액 규모 업계 2위, 최근 5년간 연평균 30% 이상 매출 성장, 40%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, 현대엘리베이터(주)의 총 소요 물량의 70%를 공급하고 있다. 많은 업체가 하네스의 메인인 전선을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데 반하여 코엔전자산업(주)는 전선의 직접 생산부터 하네스 작업 완료까지 일괄생산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, 이점을 이회사는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아 성장해 나

갈 것이다. 여기에 국내 3대 엘리베이터 업체들의 물류센터가 몰려 있는 천안 아산지역에 공장을 위치시킴으로써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한 획기적인 제조원가 절감을 실현시켰다.

또한 저층 엘리베이터부터 초고층용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을 한 라인에서 직접 생산가공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 라인 및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. 부품 구매업체와 완제품 납품업체를 잇는 15여 년의 견고한 가치사슬은 코엔전자산업(주)의 지속적인 성장의 또다른 힘이다. 또 내부적으로는 주요 기술 인력을 장기 근속시켜 핵심 기술을 축적,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확보, 품질 관리 및 표준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최근에는 현대엘리베이터(주) 이외에도 오티스 엘리베이터(유) 및 티센크루프동

양엘리베이터(주) 등 국내 굴지 엘리베이터 업체와도 공급 계약을 추진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 50%이상 달성을 목표로 사업에 정진하고 있다. 이상태 대표는 “사업이 안정화되고 성장 가속도가 붙으니 오히려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.”고 말한다. 20여 년 한길을 달려 오는 동안 고초도 많이 겪었다.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불안의 영향으로 수익성 증가세가 다소 둔해지고 있지만, 케이블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올해 10월부터는 보다 월등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동종업계 매출 1위 달성은 물론 케이블 자체의 국내외 판매를 통한 원자재 시장 진입 등 사업 다각화도 계획하고 있다.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“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른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여,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란다.”는 바람을 함께 전했다.

(출처-서울신문 '2008년 8월 1일 금요일)